

함평군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통합건강서비스 ‘호평’

재가(在家) 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방문재활서비스·식품키트 전달... “건강관리 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가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건강서비스가 지역 장애 가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在家) 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접촉 최소화)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253명의 재가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육 등 1:1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역민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내방

객들을 대상으로 콩나물 재배키트를 제공하는 등 소일거리를 통한 정서적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함평군보건소 관계자가 한방진료실에 내방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콩나물 재배키트를 전달하고 재배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광주 남구 “아름다운 시각언어 ‘手語’ 배웁니다”

수어 교육 50명 모집

9~11월까지 진행 예정

광주 남구는 장애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청각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시각 언어인 수어(手語)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7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를 통해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수어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관심 있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는 오는 1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 이내이다.

신청서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6층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607-3405), 이메일(minaow@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수어 교육 프로그램은 구청 6층 중 회의실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특히 청각 장애 등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聾人)과 청각 장애인들의 고유문화인 농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어 전문가를 초빙해 매주 한차례씩 손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시각언어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어 교육 프로그램 회차별 주요 주제는 ‘만나서 반가워요’, ‘자주 연락 나눠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무엇을 좋아 합니까’,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선물하고 싶어요’ 등이며, 교육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수어로 표현하는 수료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선옥 기자

광주시교육청,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는 ‘2020학년도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가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학교는 ‘KTIL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행복발달코칭센터’ 등 4곳의 지역사회기관에 위탁했고, 3~17일 각 기관별로 8일 동안 운영된다.

지난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는 방학기간 동안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단절 최소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름방학학교의 참여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운영한다. 코로나19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수학교와 기관 자체 교육시설에서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각 학생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화순군, 치매환자 1:1 맞춤형 방문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이 가정 내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자 희망자에 한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서비스는 치매 전문 인력이 직접 치매환자의 가정에 주 1~2회, 총 8회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콩나물 재배키트, 화분 기르기, 인지훈련을 위한 학습지 풀이, 미술치료, 소근육 운동요법 등 치매인지기능강화와 우울감 예방, 정서 안정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 외에도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센터에서 검진, 상담, 치료비지원 등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자연속의 가족끼리 곡성